1. TPM활동 기초로서의 5S활동

TPM컨설턴트/품질기술사 권 오 운

현장환경개선 활동은 품질경영은 물론이고 기업경영을 위한 현장관리의 가장 기반이 되는 활동이다. 경쟁력있는 현장이 되려면 문제의 요인을 찾아 개선시켜야 하는데, 생산현장의 각종 손실(로스)이나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어서는 생산의 효율은 물론 직장의 안전확보에는 중대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현장개선의 기본수단은 5S활동의 도입추진과 현장중시 안전환경확보에 의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5S활동은 기업의 생산활동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손실(로스)를 배제시키고 규율있고, 깨끗하고, 눈으로 보는 관리가 가능한 직장체제를 가능케 한다. 아울러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는 생산성향상, 불량감소, 원가절감, 납기준수, 재해·공해방지 등은 5S가 실천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TPM추진에서는 현장개선기초로서의 5S를 먼저 추진하고 난 후, 5S를 바탕으로한 설비의 자주보전, 계획보전추진을 통해서 현장설비개선 및 체질개선을 이룩하고, 나아가 고장제로, 불량제로, 재해제로, 공해제로화의 TPM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TPM추진을 함에 있어서, 5S 중에서 특히 필요한 것은「정리, 정돈, 청소」이다. 이 정리·정돈·청소는 일상 잘 사용되는 말의 하나이지만, 일상업무 중 확실히 실행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공장건물의 벽 등에는「정리·정돈·청소」의 6문자는 어느 공장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창고 속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 수 없으며, 적재선반은 어지럽기까지 하다. 더우기 치구와 공구는 작업대에 흐트러져 있고 정위치되고 있지 않다.

공장에서 정리·정돈·청소가 외치는 구호정도로 끝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래서, 정리·정돈·청소를 매일의 일상생산활동 속에 넣고,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한 체계와 습관화가 필요하게 된다. 또, 물품을 놓아둔 장소를 본인만이 알아서는 안된다. 관계자라면 누구라도 정리·정돈된 내용을「한 눈에」알 수 없어서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의 5요소로 된 5S의 추진에 의한「눈으로 보는 관리」가 필요하게 되며, 5S추진과정에서의「눈으로 보는 관리」는 정리단계에서의 loss 대상「적찰(붉은 표찰)표시작전」, 정돈단계에서의「간판작전」과 기타 여러 눈으로 보는 정돈방법이 도입되며, 청소단계, 청결화단계 등도 모두 눈으로 보는 관리가 도입·실시되어 현장을 정비시킨다. 그리고 품질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생활화 단계에서는「부문별 품질관리를 위한 눈으로 보는 관리」도 실시되도록 연구되어야 한다.